

골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,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도모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(동아일보 1.30) >

◆ 아파트 ‘불량골재’ 비상 “콘크리트 씻어가며 검사”

- ‘검단 붕괴사고’ 이후에도 골재업체에 대한 부실감독 여전
- 자연 채취 골재 생산량은 감소하고 선별·파쇄, 재활용 골재 사용 증가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'22년 7월부터 골재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도입하였으나, 사전 예고(7일 전) 후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특성상 점검에 한계가 있습니다.
 -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'23년부터 예고 없이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병행하고 있으며, 수시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
- 이와 더불어, 레미콘에 불량골재가 혼입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의 생산, 판매,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 시스템도 올해 안으로 구축하여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입니다.
- 한편,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골재채취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	책임자	과 장	우정훈 (044-201-3538)
	건설산업과	담당자	사무관	윤석진 (044-201-3539)